

SK케미칼, 중국 PTA 시장 진출?

Eastman-Lurgi와 연계 제조기술 수출 ... 중국 60만톤 플랜트 건설

SK케미칼, Eastman Chemical, Lurgi Oel Gas Chemie 3사가 공동으로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제조기술을 중국의 浙江花蓮日光에 수출하기로 합의했다.

浙江花蓮日光은 PTA 60만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인데 기술 라이선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른 시기에 플랜트 건설에 착수할 방침이다.

SK케미칼은 PTA 기술의 중국수출을 계기로 중국 PTA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Polyester 생산국이나 원료 PTA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최대의 PTA 수입국이기도 하다.

때문에 PTA 플랜트 건설 붐이 일고 있고, BP가 廣東省 珠海에 신규 40만톤 플랜트를 건설해 가동을 개시했으며, 翔鷺가 厦門에서 90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또 2003년 2/4분기에는 대형 Polyester 메이커이기도 한 儀征이 35만톤 플랜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앞으로 PTA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여러 건의 투자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타이완의 遠東紡績이 上海 근교 투자를 검토중이며, Mitsui Chemicals도 江蘇省 張家港에서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浙江花蓮日光의 PTA 플랜트 건설은 중국의 PTA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만간 개시될 Engineering Work에 따라 검토중인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앞설 것으로 보이고 있다.

Eastman Chemical과 Lurgi, SK케미칼이 공동 라이선스하는 기술은 Eastman Chemical이 개발한 중순도 PTA 기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 원료인 P-X(Para-Xylene)와 Acetic Acid 소비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Eastman 기술을 사용해 유럽 및 미국에서는 PTA 45만톤 이상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SK케미칼이 기술을 도입해 42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4/23>